현대불교

제 788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6월 16일 수요일 (음력 5월 5일 · 불기 2554년 · 주간)

여성 수도자 모여 에티오피아 돕기 한 목소리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여성 수도자들의 모임인 삼소회는 6월 10일 서울 길상사에서 에티오피아 소녀 · 여성 돕기를 위한 '삼소회 음악회'를 개최했다. 삼소회 회원들의 합창, 국악명인 이생강 씨의 공연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오랜 내전과 가뭄 등으로 인구의 절반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에티오피아를 돕기 위한 것으로, 에티오피아에 염소를 보내기 위한 모금 활동의 일환이다. 삼소회는 3년 간 10억 원을 모금해 염소 5 만 마리를 에티오피아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박재완 기자

조계종 화쟁위원회 출범

위원장 도법 스님 등 14명 위촉… 종책 자문 역할

사회 및 종단 현안에 불교적 해법 제시와 중재를 담당할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출범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6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화쟁위원회는 제33대 조계종 집행부의 핵심과제로 추진돼 왔다. 화쟁위원회는 교육, 인권, 환경, 노동, 통일 분야의 중진스님과 NGO 대표자로 구성돼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제1기 화쟁위원으로는 조계종 호계원장 법등 스님,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남원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자민 스님,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 김종빈 前 검찰총장, 박윤흔 前 환경부장관, 윤시영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성태용 건국대 교수가 위촉됐다. 화쟁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화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매분기 1회 열리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뉘어 개최된다. 임시회의는 총무원장 혹은 5인 이상의 위원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리게 된다. 또, 화쟁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위촉식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생각과 말이 제대로 뚫리지 못하고 막혀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분쟁과 갈등을 슬기롭게 풀고, 조화롭게 상생을 모색하는 화쟁위원회를 오늘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 문제의 본질은 덮어둔 채 놓아두는 치료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이 흔쾌히 동의하고 서로 박수를 칠 수 있게 하는 다스리는 치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화쟁위원회가 해나갈 일"이라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제1차 화쟁위원회에서는 도법 스님이 위원장에 호선됐다. 부위원장에는 원택 스님과 성태용 교수가 뽑혔다.

위원장 도법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과 중도적 사고를 바탕으로 실천을 통해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고자 하는 큰 뜻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위원들의 경륜과 높은 안목이 회의를 통해 실현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쟁위원회는 종령에 준한 자문기구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화쟁위원회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점과 화쟁위원 각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화쟁위원회의 역할은 종령에 명시된 자문, 조정, 중재, 권고 수준을 넘어 초법적인 실력 행사도 가능할 전망이다

출범과 함께 첫 의제로 4대강 사업과 봉은사 사건을 선정한 화쟁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운영규정과 의제 실행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14 선지식-혜암 스님 ▶4 인터뷰-혜오 스님 ▶9 현장-파라미타 골든벨 ▶16 강의-향봉 스님

문수 스님 추모법회 일제히 봉행

조계종 종단 차원 추모사업 착수… 7월 12일 전국 동시 법회

4대강 사업 반대 등을 외치며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을 추모하는 전국 법회가 7월 12일(음력 6월 1일) 조계종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된다. 또, 스님의 49재는 조계종단 차원에서 7월 18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진행한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문수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생명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스님의 49재 막재가 끝나는 7월 18일까지 △추모사업회 구성 △전국사찰 동시 추모법회 봉행 △추모 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한다"고 6월 7일 밝혔다.

또 문수 스님이 마지막까지 수행했던 군위 지보사에는 무문관(無門關)이 개설되고 스님의 부도탑도 세워진다.

이에 대해 10일, 조계종 직할교구 상임위원회(위원장 영담 · 조계종 총무부장)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안을 확정했다. 또, 직할교구 소속 사찰과 대중이 조계사에서 진행 중인 추모기도 및 49재, 전국 법회 등 문수 스님의 추모행사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수 스님 추모사업회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 스님, 은해사 부주지 태관 스님, 도반대표 각운 스님, 중앙승가대동문회 사무처장 원경 스님, 중앙승가대 17기 대표 성묵 스님, 행자도반대표 혜일 스님, 불교환경연대 지관 스님,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웅기 사무총장과 동화사, 월정사 등이 참여해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문수 스님이 유서 첫머리에서 언급한 '4대강 사업 중지 폐기'를 · 얼마나 진행됐는가 △MB정부 복지정책 현황과 빈부격차 감소 방안을 모색하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조계종은 심포지엄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종단 입장을 정리하고, 이웃종교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종단 대변인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추모사업을 통해 문수 스님이 유서에 남긴 유지를 계승하고 우리 사회의 생명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장사 주지 법장 스님은 직할교구 상임위원회의에서 "단순한 추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수 스님이 유서를 통해 남긴 내용을 종단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반영돼야 한다"면서 "소신공양까지 하며 스님이 남긴 메시지를 통해 종단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 강조했다.

심포지엄이 열리더라도 조계종이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별도의 찬반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종무브리핑에서 "심포지엄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종단의 입장을 찬 · 반 중 하나로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되짚어보자는 취지"이라면서 "이는 자승 총무원장 스님의 '종단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일 기획실 차장도 같은 자리에서 "사회적 현안에 총무원이 찬반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천주교 주교회의를 통해 4대강사업에 반대했다고 하나 추기경이 반대의사를 발표하지는 않았다"며 "우리 종단의 중앙종회도 4대강 관련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조계종 총무원과는 별도로 문수 스님 추모기간을 선포하고 추모문화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 조동섭 기자

순국선열이여 극락왕생하소서

군종교구 20일 한국전쟁 60주년 천도법회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는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6월 20일 용산전쟁기념관 중앙광장에서 제11회 호국영령천도법회를 봉행한다.

순국선열 및 군복무 중 사망한 모든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등 스님들이 대거 참석한다. 또 김태영 국방부장관, 김학송 국회국방위원장, 국군불교종신도회 소속 군장성 불자, 6 · 25 외국참전무관, 주한미군, 천안함 유가족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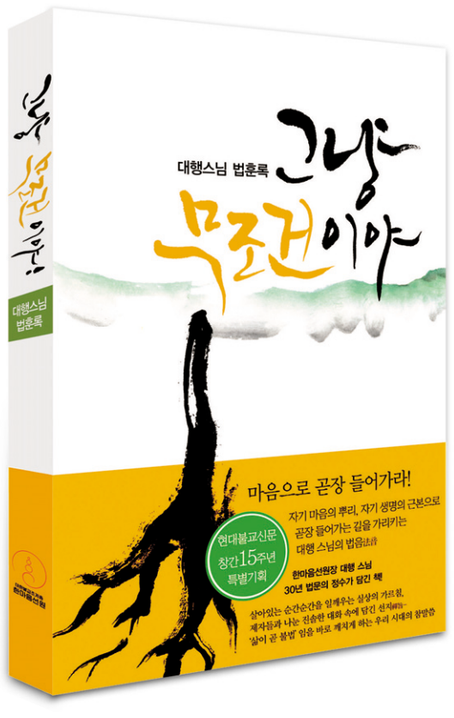
호국영령천도법회는 1부 천도의식, 2부 추모법회로 진행된다. 추모법회는 위패로 단군 건군이래 호국영가, 6 · 25참전 희생영가, 천안함 관련 희생장병 영가 등이 봉안되며 조총과 묵념, 발원문, 헌다, 헌시, 추모사 등이 진행된다. 3부 식후 행사로는 국방부 의장대 시범 및 취타대 연주, 마상무예, 선화도 그리기가 이어진다.

전쟁기념관에서 봉행되는 중앙행사 뿐만 아니라, 일선 각 부대 법당에서는 이 날을 기해 일제히 영가 천도법회가 봉행돼 국군장병 무운장구 및 국운융창을 기원한다. 이에 앞선 6월 5일 육군8군단에서 신흥사(주지 우송)와 함께 정경조 8군단장 등 군장병 4000여 명이 참여하는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됐으며 25일에는 육군5군단에서도 전몰장병합동위령재가 열릴 예정이다.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일체 호국영령의 넋을 기려 장병들에게 투철한 호국의지를, 불자 및 일반에게는 호국불교정신 함양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양시켜온 호국영령천도법회가 2000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11회를 맞이하게 됐다"며 "한국전쟁 60주년과 천안함 사태를 맞아 호국불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불교의 시대적 사명을 제고하는 금번 호국영령 천도법회에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호국불교조계종(종정 이혜륜)는 24일 오전 11시 경북 칠곡 가산면 다부동 전적비 기념관 앞 충혼탑에서 제29회 순국선열 및 호국전몰군경 합동위령대재를 봉행한다.

노덕현 기자 · 손법천 대구지사장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www.hyunbulshop.com